

국회가 주목한 ‘전남대-엠코 산학’ 협력모델

실습·실증라인 구축 등 ‘지산학연연구소’ 설립

국정감사 우수사례·국회 토론회로 성과 확산

전남대학교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엠코 테크놀로지코리아㈜와 손잡고 지역 기반의 반도체 패키징 인력양성과 연구협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장 중심 교육과 대규모 장비 기증, 공동연구소 설립, 국회 차원의 토론회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산학연(地産學研)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속 학부·대학원생 40명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K4 광주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과 품질·신뢰성 평가 공정을 견학했다.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전자컴퓨터

공학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글로벌 패키징 기업의 실제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엔지니어들과 직접 질의 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견학을 넘어 졸업연구·인턴십·채용으로 이어지는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으로 설계됐다.

전남대는 이를 글로벌대학사업과 연계해 산업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31종을 전남대에 기증할 예정이다.

기증 장비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실장·봉지 공정 등 반도체 패키징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설비로, 교육용 실습라인과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속 학부·대학원생 40명은 최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K4 광주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과 품질·신뢰성 평가 공정을 견학했다.

기업 공동연구용 실증라인을 동시에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전남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전남대·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지산학연연구

소(가칭)를 설립해 공정·소재·설계 등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공동연구와 지역 기업 기술 지원, 실무형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우수 산학협력 사례’로 소개되며 정책 차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7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전남대 보직자와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해 산학협력의 제도적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남대와 국회 관계자들은 토론회 이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K5 사업장을 방문해 글로벌 수준의 첨단 패키징 생산라인을 시찰했으며, 향후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전남대는 이번 협력을 글로벌대학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패키징 특화 교과목 개발, 현장실습 확대, 지역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과 교육이 맞물리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AI+X 융합전략을 기반으로 ‘반도체+X’로 확장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글로벌 산업혁신대학 모델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글로벌 기업과 함께 지역에서 세계 수준의 반도체 연구와 인재양성을 수행할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지역 산업에는 기술 경쟁력을 제공하는 지산학연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관계자는 “전남대학교와의 협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기술과 미래 핵심기술을 연결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채용게시판 살펴보는 구직자들 18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채용관에서 열린 ‘2025 남구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 희망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전남 지역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일부터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센터 사무공간의 월 임대료 전액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킹·IR·교육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 콘텐츠 제작 장비 등 공용 인프라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설립 7년 이내의 콘텐츠 기업과 예비창업자로, 업종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접수는 12월 1일까지이며, 서류 적격 검토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jci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sminj@jci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기반팀(061-339-69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올해의 광주상공대상’ 내일 시상식

이경노 광신종합건설 회장·윤태원 비에스보성 대표 등 5명

제13회 광주상공대상에 이경노 ㈜광신종합건설 회장, 윤보선 ㈜유림 대표이사, 김상준 엔피케이 대표이사, 윤태원 ㈜비에스보성 대표이사, 김흥연 한전KPS㈜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경영우수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경노 회장은 1985년 광신전업 설립을 시작으로 경영에 첫 발을 내딛었고, 2005년 광신종합건설을 창립했다. 이후 ‘일, 도전, 변화, 고객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매년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또 국가공공자주책지원, 독거노인 주택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건축, 토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용우수부문 윤보선 대표이사는 지난 40여년간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재해 없는 완벽시공을 추구, 국가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꾸준한 고용을 통해 2022년 330명이던 상시 근무인력이 지난해 498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계 기능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혁신부문 김상준 엔피케이 대표



이경노



윤보선



김상준



윤태원



김흥연

표이사는 ‘혁신, 품질, 친환경, 상생’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유원료 개발과 식품 상용화에 꾸준히 매진해 장 건강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품질관리와 친환경 경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엔피케이사는 202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총 15건의 특허와 59건의 상표·인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공헌부문 윤태원 대표이사는 ‘사회기여·인류공헌, 기술우위의 가치창조, 구성원의 삶의 질향상’이라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건설, 친환경에너지 등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장학재단 및 미술관을 통해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자비신행회를 통해 나눔빨래차 지원, 심시일만 밤차 지원, 토요배움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사상생부문 김흥연 한전KPS 대표이사는 ‘Green Energy와 함께, 사

랑반은 지속성장 기업’이라는 경영 목표를 토대로 한전KPS가 국내외 발전 장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공헌하고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노력을 통해 노·사 상생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KPS는 노사갈등 사전예방 노력으로 2년 연속 노사 및 노노간 갈등 Zero, 고용노동부 안정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광주상왕의 기업체 임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하고 업무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협력 등으로 회사발전 기여한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로 금호고속㈜ 정영록 차장 등 20명을 선정했다.

광주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표창해 그간의 공로를 알리고 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3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www.hdhitec.co.kr

HYUNDAI HI-TEC Industry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1991년에 설립된 현대하이텍은 Mobility Body Maker로 인화전선, 근면성실, 주인의식이라는 사훈과 품질향상, 기술혁신, 신용확대 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하이텍은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임직원들 준중하고 함께하는 경영을 추구하여 보다 비전있고 가치있는 회사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주)현대하이텍 · (주)넥스오트 회장 김용구

현대하이텍 본사

현대하이텍 제2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제일사 · 주식회사 넥스오트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오신동) · 제2공장/부연구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초로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q24@daum.net · Homepage: www.hdhitec.co.kr